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두시영 화백 작품전 개최

아리랑의 얼 · 역사 가슴에 품다

‘월명, 군산 아리랑’ 등
수십여 점 작품 공개
우리민족 정체성 표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에서는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군산지점)에서 두시영 화백 작품전 ‘아리랑, 얼과 역사를 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리랑’을 표현하는 두시영 화백의 작품전으로 기획되었으며, 아리랑을 통해 우리의 민족정신과 역사적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두시영 화백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을 처음 접하고 30여년을 줄곧 아리랑만을 캔버스에 녹여온 두 화백은 서울민족미술협회 대표, 서울미술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관악지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아리랑미술연구소 대표 및 한국미협, 서울민협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인 아리랑의 미학을 현대적 회화로 표현하는 두시영 화백의 이번 초대전에서는 작품명 ‘월명, 군산 아리랑’과 ‘선유도 아리랑’, ‘고군산 아리랑’을 비롯한 수십여 점의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두 화백이 평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 신명의 역사를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



장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에서 아리랑 작품들을 통해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금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두시영 화백의 작품전이 진행되는 근대미술관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372호인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을 보수 복원해 현재는 미술전시 및 안중근감옥 등을 재현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먹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느끼러

정방원 ‘묵향만리’ 첫 개인전

먹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전하는 정방원 작가.

그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묵향만리’ 첫 개인전을 오는 18일까지 갖는다.

작품에는 그윽한 먹내음이 서예를 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감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정 작가는 서예를 단순히 문자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산수화나 회화처럼 표현하며 재해석한다. 또한 추상적인 서체와 디자인(캘리그래피), 문인화적인 그림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선묘, 세심한 필선, 부드러운 담묵의 번지기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한다.

작품의 내용은 작가의 종교적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작가는 자음만으로 쓴 작품들은 성경의 고대 서사기법에 착안해 새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가요 및 현대 시 등을 담은 대중

적인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순수미술학부 서예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먹행진전, 제3기 한국서예청년작가전, 월간 미술세계 창간 33주년 특집 한국 서예 대표작가 특별전-‘한국 서예 큰 울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획초대전을 펼쳤다.

대한민국 강암서예대전 대상, 창암 이삼만 대한민국 회화대회 우수상, 제32회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차하(전라북도교육감상), 반월문화제 포천회화대회 대상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 서울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 협회,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서울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시인의 사랑’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보여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 선정작 ‘시인의 사랑’(감독 김양희)이 제42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지난 7일 개막한 토론토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프리미어 영화제로, 지난해엔 ‘이수라’, ‘아카씨’ 등이 초청돼 상영된 바 있다.

이번 영화제 기간 중 선보여진 ‘시인의 사랑’은 첫 번째 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의 작품을 모아 상영하고, 이를 통해 신인 감독들을 발굴 및 소개하는 ‘디스커버리’ 섹션에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서 김양희 감독은 “토론토에서 환영받은 느낌을 언젠가 다시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시인의 사랑은 지난 11일 스토리아뱅크 극장에서 관객과 영화제 관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공적인 첫 상영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시인의 사랑’은 창작의 끈기에 빠진 제주도 시인이 해사한 소년을 만나면서 시와 인생의 깊이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오는 14일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 ‘상복 터졌네’

수리무용콩쿠르서 최태현씨 금상 · 박수로씨 은상
동아무용 현대무용 남자부문 최정훈씨 은상 차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전국 각종 무용콩쿠르에서 수상에 영예를 안으며 대학의 명예와 무용학과 교육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했다.

지난 9일 군포시에서 개최된 제 15회 전국 수리무용콩쿠르에서 대학부 현대무용 개인부문에 참가한 최태현씨가 금상을, 박수로(이상 무용학과 3년)씨가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금상에는 군포시장상과 상금이, 은상에는 군포예총회장상이 주어졌다.

전국 수리무용콩쿠르는 무용을 통한 정서발달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무용이념의 실현과 무용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사)한국무용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무용인들을 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무용수들이 발굴되는 전국적으로도 명성 있는 대회다.

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최태현 학생은



최태현씨



박수로씨

지난 9월 3일 대구에서 열린 제25회 대구 신인무용콩쿠르에서도 대학부 현대무용 개인부문에서 최정훈(무용학과 3년)씨도 은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 무용학과가 연이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7회 동아무용콩쿠르 본선 일반부 현대무용 남자부문에서도 최정훈(무용학과 3년)씨도 은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 무용학과가 연이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도교수인 이준모 교수는 “탄탄한 기본기와 작품의 완성도면에서 타 경연자와 차별화된 안무구성 및 절도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우리 학생들이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영상으로 담은 ‘전북지역 여행’ 이 중 잘나온 작품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 공모작 15편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의 영상 공모작 15편을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재단은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는 전북의 여행을 주제로,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작들은 영상·관광·홍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심사위원들에 의해 영상콘텐츠(영상 결과물의 완성도 등), 관광콘텐츠(새로운 관광콘텐츠 및 코스 제시 여부 등), 홍보콘텐츠(전라북도 지역 홍보 기여도 등) 등 총 3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됐다. 그 가운데 대상 1편·최우수상 1편·우수상 3편 등 총 5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이진섭 팀이 출품한 ‘여행 대신 가주는 남자(여행지 전주·군산)’가 차지해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Lea Moreau 팀의 ‘Gochang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여행지 고창)’가 차지했다.

또 백종훈 씨의 ‘전라북도를 듣다(여행지 전주·무주·진안)’, 박승진 씨의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여행지 고창·부안·전주·남원)’, 소재현 씨의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의 전북도 여행기!(전주·부안·군산)’이 우수작



으로 선정돼 공동 수상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는 단순한 영상미에 치우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메시지와 정보를 담은 영상 콘텐츠들이 접수됐으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전문가 수준의 영상 편집기술을 구현한 작품들도 다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 공모전은 기존의 관 주도적 관광홍보 방식을 탈피, 관광객 주도의 홍보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에 대한 친근하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추후 SNS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